

## 설교에서 '성서일과' 사용의 신학적 의미

최 영 목사(목회와 신학연구소장)

### 1. 성서일과의 간추린 역사

설교의 유형은 다양할지라도,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물음일 것이다. 기독교 전통은 역사적으로 이 물음에 두 가지 유형의 해답을 제시하였다. 곧 '연속낭독'(lectio continua)과 '성서일과'(lectio selecta) 방식이다. 우선 연속낭독은 주일마다 한 권의 성서를 이어서 통독하며, 읽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대 교회에서 일반적이었고, 종교개혁과 함께 개혁교회가 확신을 갖고 새롭게 받아들인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조직적이고 교리교육적인 방법인데, 곧 성서일과 낭독의 방식이다. 이것은 교회력의 제정과 관련하여 5세기 이후 일반화된 방식이었다. 이후 서유럽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다가 9세기 초 표준화 과정을 거치며 1년 과정의 로마교회의 성서일과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회력과 성서일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교회력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성자들을 위한 교회력과 성서일과로 변질되어갔고, 결과적으로 개혁자들에 의해 배격을 받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츠빙글리는 1519년 마태복음에 대한 연속적인 설교와 함께 목회를 시작했고, 칼빈은 1536년 로마서에 대한 연속적인 강의와 함께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설교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었다. 원래 교회규정에 따르면 매주일 설교가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츠빙글리와 칼빈이 전체 성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성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성서만"(sola scriptura)을 교회의 선포의 유일한 규칙과 기준으로 삼고, 교회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성서원리'로 알려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의 순종을 유독 강조했던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방식이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 설교자들은 점차 일정한 규범이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본문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18-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설교자 자신의 종교적 경험, 지식, 세계관, 그리고 철학이 설교의 정의와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장로교회의 본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예배회복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력과 성구집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40년에는 『교회의 예식서』에 영국교회가 지켜오던 대부분의 성자축일들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한 교회력전통을 회복시킨 2년 주기의 성서일과를 채택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것은 다른 개신교 진영은 물론 로마가톨릭교회까지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로마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에서 예배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신교 학자들의 자문까지 받으며 5년에 걸친 연구 끝에 3년 주기의 성서일과(1969년)를 출판하였고, 곧바로 영어권 개신교회들도 3년 주기의 '공동성서일과'(1983년 출판, 1992년 개정)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본문선택의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개혁교회도!) 그 둘 다 기독교 예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sup>1)</sup> 목회와 신

학연구소는 2013년 대림절부터 이 ‘개정판 공동성서일과’(The Revised Common Lectionary)에 따른 “말씀과 함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선택의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성서일과’ 사용이 주는 유익과 신학적 의미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성서일과 사용의 유익과 신학적 의미

### 1) 성서일과 사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는 각 주일이 지닌 의미에 따라 적절한 성서본문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성서일과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구약성서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읽고 듣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성서일과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은혜로 주어진 해방과 용서와 화해의 복된 소식을 회중들에게 질서 있고 일관되게 전달하고 강단설교의 구상과 교회교육을 기획하는 일에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유익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성서일과 사용의 유익과 신학적 의미를 말하기 전에, 우선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를 살펴보자.

(1) 우선 제기되는 불만은 설교자가 설교본문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바로 다음의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된다.

(2) 설교자는 누구보다도 회중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데,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할 경우에는 그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설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본문 속에서 자신의 설교를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본문을 선택한다고 할 때, 여기서 본문선택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할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성서본문을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고후 10:5)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은 우리가 성서와 대립하여 우리 자신의 자유와 전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본문을 선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복할 것인가 이 양자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여 우리 자신의 자유와 전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불복종이 되고, 이 경우 성서는 우리 자신의 주의·주장을 설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그때는 복종이 설교자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서일과는 설교자의 본문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에게 이미 주어진 성서본문이 말하려는 것만을 말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설교자 자신이 자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을

1) 장자끄 폰 알멘/박근원 옮김, 『구원의 축제』(서울: 진흥, 1993), 163이하.

제약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데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한다.<sup>2)</sup>

(3) 성서일과를 따를 때, 시사적이고 상황적인 설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 성서일과는 교회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것과 바로 관련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개혁자들로부터 배운 바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의 근거와 표준과 내용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긴급하고 객관적인 지시와 관련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려 퍼지게 하기 위해 매우 인상적인 일종의 포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성서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과감히 단념해야 하고, 성서만을 설교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시사적인 문제들과 상황적인 사건들에 대한 염려는 결코 설교의 출발점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칼 바르트의 전기를 저술한 G. 까잘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바르트의 설교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려 퍼지게 한다는 신념을 가질 때, 그의 설교는 시사적이고 상황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설교자의 유일한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영원하신 말씀과 따라서 언제나 현실적인 그 말씀에 대한 염려이다. 그리고 그 때, 단지 그 때만이 그 결과로서 현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조명되고, 비판적으로 분석되며, 설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시사적인 것이 설교에 등장한다면,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끌고 와서 설교에 끌어넣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 있다면,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는 자연스럽게 시사적이고 상황적인 관련성을 갖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서일과는 성서의 방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거나 중복되는 본문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정판 공동성서일과’에서 제외된 본문과 중복되는 본문을 성서일과의 부록에 첨부하여 설교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사소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성서일과를 사용하는데 따른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성서일과는 설교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성서일과 사용에 따른 유익과 그 신학적 의미

성서일과를 근거로 설교를 구상할 때, 우선 설교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설교할 수 있다. 성서일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온 세계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를 배경으로 각 주일이 지닌 의미에 따라 적절한 성서본문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를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체 내용, 곧 하나님의 구속적 드라마 전부를 설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서일과에 의한 설교는 전체 교회의 신앙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교회력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

2) 칼 바르트/정인교 옮김, 『칼 바르트의 설교학』(서울: 한들, 1999), 110.

3) 조르즈 까잘리/최영 옮김, 『칼 바르트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73.

서일과를 따라 설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유익을 얻게 된다. 셋째, 교회력을 설교의 근거로 활용할 때, 철저히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전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의 신앙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sup>4)</sup> 넷째, 성서일과는 회중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교회주보에 다음 주 설교본문이 미리 공지됨으로써 회중들은 한 주간 동안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설교자가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할 때 이 같은 일반적인 유익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얻는다.<sup>5)</sup>

(1) 말씀의 지시를 따르는 설교.

우선 매주 설교를 위한 본문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본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본문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설교자는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상당부분 설교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보물을 응시하고, 그런 다음 이 헤아릴 길 없는 보물을 모으고 집어서 신자들에게 전해 주는 일이다. 그가 이렇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청중하고 말씀의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위임할 때, 자기 자신의 자의적 설교의 위험이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위험성이 줄게 된다.<sup>6)</sup>

(2) '계시'에 적합한 설교.

바르트에 의하면 설교는 무엇보다도 계시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설교는 이미 일어났고 또 장차 도래할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교회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정위한다.<sup>7)</sup> 설교자는 주어진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강제 아래(고전 9:16) 놓이게 되며, 이것이 설교자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성서에 흐르는 고유한 사고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개혁자들이 '성서원리'를 통해 관철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며,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인가를 뒤따라 말하는(*nachsagen*) 것임을 분명히 한다.

(3) 설교의 신앙고백적 적합성.

신앙의 고백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credimus*)”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신앙고백과 교회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빚어지는 위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차 없는 순화와 정화를 통하여 일어난다. 신앙고

4)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56.  
 5) 바르트는 1932/33년 두 학기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개설했던 설교학 강좌에서 “설교의 9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그 중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몇 가지 기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48-106참조.  
 6)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109, 113.  
 7)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세 가지 형식들(설교, 성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리신다.

백과 교리는 여전히 인간의 말로써 남아 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관련에서 그것은 하나의 합법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된다. 따라서, 바르트에 의하면, 설교는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신앙고백과 교리의 규범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성서일과는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를 하게 될 때, 교회는 기초부터 그렇게 세워졌어야 하는 바로 그대로 항상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는 기독교신앙의 바른 전통에 깊게 닿을 내릴 수 있게 된다.<sup>8)</sup>

#### (4) 설교의 성서적 성격.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는 설교의 유일한 원천이며, 설교는 단순히 성서를 해설하는 것이다. 설교는 성서를 뒤따라 말하는 것이지, 설교자 자신의 지식, 종교적 감정, 그리고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는 성서 앞에서 있고, 성서의 강제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서 성서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단념해야 한다. 설교의 시작부터 성서본문이 설명되고, 무게가 실리고 객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부차적일 뿐이다. 바르트는 자신이 언제나 “성서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좋은 설교의 첫째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9)</sup> 그는 성서에 가까운 설교를 위하여 설교자가 지녀야 하는 태도와 자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sup>10)</sup>

첫째, 성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요청된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성서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서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이 신뢰와 확신이 없는 자이고, 또 실질적으로 설교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서의 해석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투구하는 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는 자의 태도를 취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쏟을 때는 다른 일을 위해 어떤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 자의 태도를 말한다.

셋째, 본문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성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시종일관 동일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항상 되풀이하여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문서로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엄격한 언어적-역사적 연구를 필요로 하며, 또한 성서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때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sup>11)</sup> 단순히 언어학적인 깊은 통찰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넷째, 성서와 일치하는 설교에서 설교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겸손이다. 설교자는 설교에서 다소라도 자신의 어떤 재질을 가지고 스스로 주목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

8)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71-72.

9) 칼 바르트/정미현 옮김, 『마지막 증언들』(서울: 한들, 1997), 59.

10)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86-90. 성서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단념하고 단순히 성서를 반복하는 이러한 방식의 설교는 초기 개혁자들이 제시한 성서해석과 설교 방식이었다. 그들은 성서를 통하여 성서를 해설하고,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통하여 어려운 페이지들을 해설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같이 성서에 의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원리는 「제1 스위스 신앙고백」,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등 초기 개혁교회의 많은 신앙문서들에서 발견된다.

11) K. Barth, *Church Dogmatics* II /2, 706.

는 자신이 갖고 있는 깊은 지식, 가장 좋은 통찰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앞에서 포기해야 한다. 설교자는 이 모든 것들을, 성서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의 돌입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의 조명하는 힘은 우리 자신의 아름답고 매력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구겨 맞추는 그런 설교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진 성서의 맥락에서 더욱 큰 능력을 발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항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쳐부수고 그리고 언제나 되풀이하여 이 모든 일체를 내 버릴 수 있어야 한다(참고, 빌3:7-8).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말을 당신의 말씀의 매개물로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설교자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건이다. 설교자는 성서와 함께 하는 생명의 역사 속으로, 설교자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발생하게 되는 그 역사 속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우리가 이 사건의 운동 속으로 들어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것이 우리를 성서 전체에 걸치는 성서의 사실과 내용에 인도하도록 내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좋은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소위 ‘축자영감설’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본문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사실, 칼빈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를 통해 말하려 했던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5) 설교의 독창성.

설교는 성서본문에 부합해야 하며, 본문을 뒤따르고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는 단순히 주석이 아니라 해석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서본문을 지금 여기에 있는 회중과 관계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먼저 성서본문의 청중이 되는 방식으로 성서와 대면해야 한다. 그런데 설교의 독창성은 설교자의 개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성서본문에 의해 심판받고, 회개에로 인도되고, 또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설교는 독창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설교자는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그는 사전에 미리 성서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언제나 되풀이하여 들어야 한다. 단지 이 작업을 거듭할 때만, 그는 성서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언어와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다.<sup>12)</sup>

### 3. 말씀의 강제 아래서 누리는 자유

H. 불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의 첫째 장 제목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들에 의해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 말을 통해 강조하려고 한 것은 성서에 의해 규제된 설교, 바꿔 말하면 성서의 강제 아래 있는 설교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에 상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진술은 오로지 성

12)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94-97.

서의 규제 아래서 성서를 따르는 설교에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는 분명히 감수해야 하는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설교자가 성서일과를 따라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한 불편한 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유익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의 가장 큰 매력은 설교자가 바울처럼 매주 이미 주어진 본문의 강제 아래 서게 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자기 자신을 말씀의 강제 아래 둠으로써 성서를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은”(Inst. I.vii.5)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제네바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바르트 역시 그러한 방식을 통해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sup>13)</sup>를 발견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던 20세기 초에 위대한 신학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칼빈과 바르트가 경험한 이 성서읽기 방법은 성서가 우리의 전제에 의해 왜곡되거나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그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이다.<sup>14)</sup>

우리는 나름대로 참되고 선한 것에 관한 우리 자신의 관념을 갖고 있고, 당연히 성서를 읽을 때 이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제들과 일치하는 것만을 성서에서 듣거나 적어도 그 전제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성서에서 듣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칼빈과 바르트의 성서읽기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유롭게 말씀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단(豫斷)과 전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를 습격하여 뿌리째 뽑아버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서자체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전이해는 훈련된 질문과 비판에 종속되어 실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살아 있는 말씀의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과중한 설교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한 주에 여러 번의 설교를 해야 하는 과다한 횟수에 따른 부담 외에도 목회자 자신의 설교를 CBS나 CTS같은 케이블 TV를 통해 수시로 접하는 국내외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와 비교하는 회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감은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서 살펴 본 여러 유익들 외에도, 본문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여유를 갖고 성서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동료 목회자들이 함께 같은 본문들을 연구하고 묵상한 후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 풍성한 영성과 지식과 설교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서일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설교자가 말씀의 강제 아래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속에 이끌려 들어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조율된 설교를 통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일 것이다.

13) K. Barth/오영석 옮김, “성서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말씀과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7-26을 참고.

14) T. F. Torrance, *Karl Barth: An Introduction to His Early Theology, 1910-1931*(SCM Press, 1962), 202.